

〈현몽쌍룡기〉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 양세 연구

정선희*

〈차 례〉

1. 서론
2. 단절된 부자관계 속 아들의 분노와 악행
3.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비극
4. ‘부자 갈등’ 속 ‘남성 악인’ 설정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몽쌍룡기〉라는 18세기의 국문장편 고전소설 작품에서 단절된 부자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 ‘양세’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피고, 이러한 형상화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논하였다.

양세는 아버지의 불인정, 차별 때문에 비뚤어져 가정 내의 분란을 만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으며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상소로 인하여 죽었다. 부자 갈등에서 촉발되어 누이를 질투하고, 이것이 누이 모해로 옮겨 가 악행을 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계속하여 일을 확대해 아버지를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다가 자신이 죽게 된 것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 중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등 몇 작품에서도 부자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있지만, 유독 〈현몽쌍룡기〉에서는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갈등이 점점 커져서 서로 죽이려 하다가 아들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부자 갈등을 그리는 것은 선한 인물의 선함을 강조해 보여주려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다. 효성 지극하고 선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그렇기에 양공과 양세의 갈등과 양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은 작품의 주제적 지향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서사적 재미의 측면에서 기획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극악한 악인 형상을 통한 극적 긴장감 조성과 비난 유도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부자갈등이 종종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양세와 같이 극악한 악인 역할은 주로 여성, 대개는 며느리들이 맡는다. 아들의 악처, 악첩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그녀들을 징치해 가문의 어엿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서사가 대다수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그녀들이 계도되지 않을 때에는 죽이기도 하지만, 친부가 그녀를 죽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양세’라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을 ‘남성’ 악인으로 형상화했기에 여성을 악인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더욱 확장된 서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타 작품들에도 남성 악인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 악인들을 돕는 도사나 요술사, 자객들이 많아 보조인물이라 할 만하고 조연급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양세라는 대단한 악인이 많은 분량으로 등장함으로써 긴장감 있게 갈등을 조성하고 가문 밖의 인물들까지 끌어들이며 활동 무대를 넓혔다.

요컨대, <현몽쌍룡기>에서 보인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형상화는 중심 가문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흥미롭게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부자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을 미워하기만 하고, 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며, 주변인들도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들의 극악한 악행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등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고 통속적인 쪽으로 흘러간 면이 있지만, 단절된 부자 관계와 그로 인한 비극의 모습을 강력하게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현몽쌍룡기>, 국문장편 고전소설, 부자관계, 부자 갈등, 남성 악인, 분노

1. 서론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연작은 18세기경에 창작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이다. 전편(前篇)인 <현몽쌍룡기>는 조

숙의 쌍둥이 아들인 조무와 조성의 이야기로, 조무와 정소저, 조성과 양소저의 혼인과 부부갈등이 중심이며 18권 18책으로 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 유일한 완질본(完帙本)이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에서도 특히 오락적인 흥미를 느끼게 하는 대중적 독서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사기법이나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¹⁾, 악행이나 악인에 대한 연구도 몇 편 있지만²⁾,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양세³⁾에 대한 인물론적 성격의 연구는 없었다. 그는 〈현몽쌍룡기〉에서 가장 극악한 악행을 하는 인물인데, 아버지의 불인정, 차별 때문에 비뚤어져 가정 내의 분란을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역모에 가담했다고 하여 죽는다.

양세 부자의 경우는 아들이 못한 경우인데, 반대로 아버지가 못한 경우를 고찰한 연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전체에서의 부자관계를 고찰한 연구, 〈원월회맹연〉에서의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 고찰한 연구, 국문장편소설에서 부자관계와 모자관계를 비교한 연구 등이 있었다.⁴⁾ 아버지가 못한

- 1)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문희,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웃음의 서사미학』,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 2)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11. ;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애욕추구형 악인의 삼각형의 욕망 구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 한길연, 『영웅소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14. ; 이지하, 『〈현몽쌍룡기〉의 음모구조와 소설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 3) ‘양세는 〈현몽쌍룡기〉 2권에서부터 등장하는데, 2권에서는 ‘양계’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4권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양세’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세’라고 통일하여 부른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현대역본 『현몽쌍룡기』 1~3권(김문희·장시광·조용호 역주, 소명출판, 2010.)에도 ‘양세’라고 되어 있다.
- 4)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

경우에 아들의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이지만, 아들이 못한 경우는 무엇을 강조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을 듯하다. 특히 잘못된 자녀에 대한 태도의 면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일방적인 지시나 소홀한 방치, 폭력적인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는 본고에서 살피는 양세의 아버지 양공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타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상이나, 엄격하지만 타당성 있는 훈계를 하는 아버지상이 종종 그려지는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아들을 처음부터 못났다고 규정하고 무시하는 아버지상이 설정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런 아버지가 있기에 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은 뼈뿔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지만, 작품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아들이 못났다고 치부되고 부정적으로 서술된다. 이런 설정은 대체로 그런 아들을 포용하고 계도하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적절한 지도력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여 아들을 못마땅해 하고 배척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가 요행히 잘되는 것조차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면에서 특이하다.

한편, 양세의 못남은 부자 갈등에서 누이 모해로까지 이어지므로 그가 누이를 질투하게 된 심리가 병행되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후편인 <조씨삼대록>에서는 대표적인 남성 악인 설강이 친구에 대한 질투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⁵⁾과 비교되는 면이다. 그렇다면, <현몽쌍룡기>에서 양세가 부자 갈등에서 촉발된 누이 질투를 하고, 이것이 누이 모해로 옮겨가 악행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계속하여 확대해가면서

-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탁원정, 「국문장편 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한길연, 「대하소설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 - 잘못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정선희,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연구」, 『한국고전연구』 49, 2020. 5.

아버지를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 갈등은 우리 문학이나 현실에서 종종 보이는 대표적인 갈등이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에서부터 현대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부자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부자간에 갈등하는 내용이 종종 있고, 장자보다는 차자나 딸을 더 신뢰하면서 가계나 재산을 계승하려 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 고민하거나, 아버지의 무시에 괴로워하는 등의 내용이 전개되기도 한다.

〈현몽쌍룡기〉의 후편인 〈조씨삼대록〉에서는 좋은 아버지의 상으로 초공이 자상한 면을 보이는 것에 비해, 전편인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부터 악하고 못났다고 규정하고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자 갈등을 주요 갈등으로 부각하고 있는 점, 재능 있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점, 사위를 칭찬하고 의지하는 점 등이 큰 차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절된 부자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단절된 부자관계 속 아들의 분노와 악행

1) 아버지의 아들 무시와 딸 편애

〈현몽쌍룡기〉는 조무와 조성 형제가 주인공이다. 조성의 아내인 양옥설의 오빠가 양세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아버지 양임과 어머니 조씨가 모두 풍채도 좋고 덕이 있는데도 아들은 이를 닳지 않아 학문도 알고 성품이 포악하며 흉악하고 독한 생각만 품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양임이 매우 불쾌해하며 눈썹을 찡그리고 탄식하면서 부자의

친륜을 없애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들이 있는 것이 도리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⁶⁾

반면에 딸 옥설은 신이한 태몽을 꾸고 낳은 아이답게 날 때부터 광채가 나고 기이한 향기가 나며 범상치 않았기에 남자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한다. 아끼며 키우니 10여 세가 되어서는 온갖 자태와 광채가 기묘하고 채주와 덕행의 특이함도 빼어나며 기품이 곧고 순하여 마치 신선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조씨 가문의 조성을 사위로 점지한다.⁷⁾

딸을 혼인시키고 싶어 아들은 대충 먼저 혼인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저 어질지 못한 자식’, ‘아들이 못나고 어리석어서’라고 서술되어 있다. 아들이 못났기에 한미한 선비 가문과 혼인을 이루되 덕이 있는 여인 두씨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녀는 박색이었지만 양세와 화목한 편이었다. 하지만 양세는 술에 취하면 창녀를 가까이하면서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그래도 두씨는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시누이 옥설과도 우애롭게 지낸다.

그 후 양임은 딸 옥설을 조성과 혼인하게 하지는 약속을 한 뒤 기뻐하지만, ‘아들의 불초함을 통한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양씨 가문을 밋게 여기시어 저렇게 부모 마음을 거스르는 아들이 태어났으니 우리 가문은 망할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 같은 성군도 자식이 불초하여 왕위를 사위와 신하에게 맡기셨으니 차라리 이 같은 자식이 없으면 딸을 혼인시켜 죽고 난후에 의탁하는 것을 조생에게 함이 마땅할 것 같구나.”⁸⁾

그런데 이 말이 양세의 귀에 들어가 그 뒤부터 흥계를 꾸미기 시작한다.

6) <현몽쌍룡기> 2권 114~115쪽. 김문화·장시광·조용호 역주, 『현몽쌍룡기』 1~3권, 소명출판, 2010. 앞으로는 원전의 권과 쪽수만 제시함.

7) <현몽쌍룡기> 2권 116~117쪽.

8) <현몽쌍룡기> 3권 19쪽.

아버지가 자신을 부모 마음을 거스르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때문에 가문이 망할 것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아들인 자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사권을 사위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보통 사람이라도 평정심이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의 양세의 마음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어질지 못한 양세는 부모가 누이를 애중해 하는 것을 항상 꺼려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불쾌하나 억지로 참으면서 오누이의 도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혀를 차며 하는 말을 뒤편 난간에서 들었다. 음험하고 쾌씸한 의사가 더욱더 일어나 가만히 흉계를 생각하였다. 누이 부부의 금슬을 방해하여 누이를 홍안박명(紅顏薄命)의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뜻을 정하고 즉시 나왔다.⁹⁾

부모가 ‘누이를 애중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쾌해’ 했지만 참고 지내다가 아버지의 탄식을 들은 후 이제는 ‘음험하고 쾌씸한 마음이 더 커져서 흉계를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마음으로도 갖고 있던 불쾌함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동인은 부모가 자기보다 누이를 더 아끼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의 불인정, 배제가 악행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2) 아들의 누이 모해와 악인들과의 연대

이제 양세는 같이 어울리던 차평자와 강후신에게 오열하면서 함께 계락을 꾸민다.

“내가 군들과 몸은 실제로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한 몸이니 숨길 말이 있겠는가? 내가 양씨 집안의 귀한 아들이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말을

9) 〈현몽쌍룡기〉 3권 20~21쪽.

할 때마다 반드시 역자(逆子)라 하고,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이 있었다. 결단하여 나를 죽이고 조가 축생(畜生)으로 조상의 제사를 맡길 것이다. 내가 비록 이름은 재상이 자체로 부귀가 극진하나 부자의 천륜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데도 살풀이를 하여 미리 재액을 막을 의논을 하니 어찌 능히 마음이 편하겠는가? 윤기(倫紀)가 슬프지 않았는가? 군들이 나를 좇아 서로 마음을 내보이고 정의(情誼)가 골육 같으니 원컨대 좋은 모책을 지휘하여 나의 위태한 처지를 구하고 부자간의 천륜이 온전하게 하여 사람들 앞에 서게 하라.”¹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조상 제사도 사위에게 맡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런 위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부자간의 관계 회복을 할 방법은 없는가를 묻는다. 온전한 아들로 대우받고 싶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어찌 사위에게 종사를 맡기겠느냐고 위로하는 척 하지만, 여동생이 혼인하여 잘 살게 되면 양씨 집안의 재산도 여동생의 손안의 물건이 될 것이라며 부추기기도 한다. 어질지 못한 주변인들로 인해 양세는 더욱 분노하고 원망스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누이는 아름다움이 세상에 독보적이고 재주와 덕이 고래(古來)로 의논하여도 비교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쏟아져 나의 어리석고 빠르지 못함을 한탄하셨다.”¹¹⁾라고 하면서, 이제 계교를 써서 누이의 일생을 방해하여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해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폐하지 못하고, 나중에도 사위에게 제사를 의탁할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게 되자 아버지에게 사랑 받는 누이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 악한 인물들과 합심하여 누이 옥

10) <현몽쌍룡기> 3권 23쪽.

11) <현몽쌍룡기> 3권 25쪽.

설과 조성의 금슬을 방해하여 과부가 되게 하려 한다. 양세는 거짓 편지를 써서 옥설이 외간 남자 강후신과 좋아했던 사이인 것처럼 꾸미는데, 조성 이 믿지 않는다. 양세가 마음이 다급해져 다시 차평자, 강후신과 모의하여 단약(丹藥)을 사두고, 두 번째 편지를 흘리는데 치밀하고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이번에는 조성이 양소저를 의심하게 되어 은애하는 정이 점점 약해진다. 눈치 빠른 양세가 시녀 계월에게 단약을 먹여 양소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강후신과 밀회하는 것처럼 꾸민다. 이를 본 조성은 매우 분해하며 ‘다시는 음부(淫婦)를 보지 않겠다. 제가 혼인 전에 강생을 먼저 사통하였으니 차마 어찌 대면하겠는가?’¹²⁾라고 다짐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성이 티를 내지 않으니 양세가 의아해하면서 앞으로 누이가 아들을 낳는다면 가문 계승이 그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재산도 그에게 갈 것을 걱정하면서 양소저 모해에 박차를 가한다.

양세 이 흉측한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간계로 누이를 재앙에 빠지게 하였는데, 조씨 집안에서 시부모와 온 집안사람들이 그 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소문만 들리고 다른 동정이 없다는 것을 듣고 생각하였다.

‘누이의 뛰어난 용모와 제주와 덕으로 다시 조성 같은 크고 훌륭한 덕을 지닌 어진 사람을 만나니 진실로 용이 풍운(風雲)을 만나고 범이 날개가 돋친 것과 같다.’

또한 누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계월에게서 듣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누이가 만일 아들을 낳는 경사를 얻으면 반드시 양씨 종사(宗嗣)가 누이가 낳은 조씨 아이에게 전해지는 날에는 양씨 집안의 수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겠는가? 내가 당당히 조성의 철석같은 뜻을 돌려 누이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¹³⁾

이렇게 생각하고는 계월에게 무술(巫術)로 양소저를 저주하라고 하고,

12) 〈현몽쌍룡기〉 3권 121쪽.

13) 〈조씨삼대록〉 4권 76~77쪽.

조성과 그 부모를 죽게 하는 저주의 글을 양소저가 쓴 것처럼 꾸민다. 조성은 그녀를 석연치 않아 한다.

그러던 중, 양세는 계속 악행을 도모하여 양소저가 소박을 맞고 쫓겨나면 강후신에게 주기로 하기까지 한다. 차평자가 큰 새로 변신하여 양소저를 납치하려 하기도 하고, 박수관이 어사 소흠과 여진을 동원하여 정소저와 양소저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아 정소저만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양소저를 탐하던 박수관은 정소저를 양세에게 주기로 하고 더욱 악한 모해를 꾸며, 양소저가 공주를 죽일 계획을 한 것으로 만든다. 급기야는 임금이 양씨를 폐출하고 조성을 다시 혼인하게 하라고 하게 된다.

3) 아버지의 증오, 아들의 분노

폐출되는 양씨를 데리러 온 양참정은 그래도 사위 조성을 칭찬한다.¹⁴⁾ 이렇게 양참정은 늘 딸과 사위에 만족스러워하고 아들은 부족하게 여기므로 양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둘 사이에는 정이 없다. 양세는 따로 큰 집을 얻어서 미녀와 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살며 풍류잔치를 하며 흥한 계책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박수관이 양소저를 보쌌하려 했지만 피신하여 거짓으로 죽은 척하는데 양세는 이를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정소저를 달라고 하는 애욕을 보인다. 정소저도 지혜롭게 피신해버려 둘 다 없어진 것으로 되었지만, 예지

14) 양공은 본래 정직한 벼슬아치였는데 이 사위에게 이르러서는 정신이 취하고 체면을 오히려 수습하지 못하였다. 바빠 조성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어진 사위는 나의 구구함을 가소롭게 여기고 오늘부터 왕병부의 사위가 되어 흠 없이 즐기겠구나. 나의 마음은 칼을 삼키고 살을 빼어내는 듯하다. 또 한 명의 자식이 불초하나 내가 바라는 바는 어진 사위뿐이거늘 오늘 어진 사위를 보니 자네는 태연하고 아무런 마음이 없는 듯하고 조금도 슬픈 듯한 마음이 없으니 나의 딸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구나. 내가 자네를 알아주는 장인과 사위가 아니라서 그러한가?” 그리고는 조성의 옥 같은 팔을 어루만지며 간절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현몽쌍룡기> 6권 112~113쪽.

력이 뛰어난 조성이 이 상황을 다 알아차리고 식구들을 안심 시킨다. 그 후 양참정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인과 사위 사이가 더없이 살갑다.

그런 후에 손을 놓지 못하고 무릎을 맞대고는 말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조성은 또 장인의 자상한 정에 감동하여 장인에게 맞추어 화답하였다. 응대하고 문답하는 소리가 흐르는 물 같고 단정하고 정중하여 값이 두 배나 나가는 뛰어난 금과 아름다운 옥과 같으니 양공의 무궁한 사랑이 비할 곳이 없었다. 저녁밥을 함께 먹고 나서 조금 지나 조성이 하직인사를 고하니 양공이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여 슬픈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자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한 명 있는 자식은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네. 이런 까닭에 딸의 거처를 자네에게 말하지 못하였네. 요사이는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께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하지도 않네. 내가 비록 어리석고 겁이 많으나 한 그릇의 독약으로 쾌히 아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부인을 돌아보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두었네. 자네의 큰 슬기가 고인보다 높으니 나의 지나치게 연약한 마음을 자네와 의논하네. 자네의 정확한 관찰력으로 보면 양세가 흉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지 알겠는가? 점점 그 몸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 빠져 머리와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다면 차라리 조용히 죽여 좋은 곳에 묻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말을 마치자 부부가 눈물을 비 같이 흘렸다. 조성이 장인과 장모가 어진데도 한 명의 자식이 불초하여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실로 참혹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며¹⁵⁾

양참정은 사위는 이렇게 신임하면서 아들은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기에 독약을 먹여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통한해하니, 사위는 그 말에 동조하면서도, 그래도 나이가 들면 나아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위로한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아들이 모두 듣고 만다.

15) 〈조씨삼대록〉 7권 96~98쪽.

흥측한 인간 양세가 집에 돌아왔다가 조성이 왔음을 보고 뒤꼍으로 들어가 었들었다. 요행히도 처음의 말은 듣지 못하다가 다만 자기 말을 시작하는 뒤부터는 낱말이 듣고 매우 분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부친이 미워하는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름으로만 부자지간이고 사실은 원수구나. 아버가 먼저 천륜의 정을 끊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다가 죽겠는가? 저 조성이 나를 죽이고 내 집의 쌓인 만큼 같은 재물과 대대로 이어져 오는 논밭과 집과 노비를 다 자기의 기물로 삼고자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리석은 부친의 마음을 부추켜 관상에 의거하여 말하면서 나를 좋게 죽지 못할 상이라고 하는구나. 조성 같은 놈이 있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세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 조성을 죽이고 말 것이다.”

악한 마음이 불이 일어나듯 하였다.¹⁶⁾

자신의 악행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괜히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던 양세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 극도로 분노한다. 재물과 재산, 노비들을 모두 사위에게 주려 한다고 생각하여 조성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른다.

3.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비극

1) 악인들의 다툼과 실패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위만 좋아하는 것에 분노한 양세는 계속하여 악행을 저지르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양세에게 정소저 대신 붙잡혀 온 시비 벽란은 기지를 발휘하여 그곳을

16) <조씨삼대록> 7권 100~101쪽.

벗어나고, 정소저와 양소저를 둘 다 얻지 못한 양세와 박수관은 서로 닳하며 싸운다. 악인들은 성품이 좋지 않기에 각자 자기 잇속을 차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강후신이 양세에게 박수관을 이간질하자, 양세는 화가 나서 박수관의 집에 불을 질러 재물을 불태우고 그 어머니까지 똥물로 뒤덮이게 한다.

이들이 악행을 계속하다가 실패하여 다투는 사이, 조성은 광동 지방의 흉년을 다스리러 떠나게 된다. 떠나기 전에 장인어른께 인사하러 왔다가 아내 양씨가 순씨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를 양세가 엿듣고는 자기를 속였다고 누이를 죽이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한다.

급히 후문으로 들어가 부친의 등 뒤의 창문 아래에서 앞드려 장인과 사위가 문답하는 사연을 다 듣고 놀라 분하고 원통해하며 생각하였다.

‘누이의 거처를 모르는데 부모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더니 원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반평생을 부지런히 애쓰며 누이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였더니 누이가 반석 같이 순씨 집안에 있구나. 조가 짐승놈이 누이를 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이 저와 같으니 뒷날 나라에서 주는 명성을 얻으면 좋게 모여 화락할 것이다. 나는 부모가 버르는 자식이라 나를 죽이기만 의논하니 급히 다시 계교를 생각하여 순씨 집안에 있는 누이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이를 갈며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정신이 바쁘고 급하였다!¹⁷⁾

양세가 아버지와 매제(妹弟)의 대화를 엿들은 뒤, 자신은 ‘부모가 버르고 있는 자식’이고 자기를 죽이기만 의논하니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린 조성은 미리 아내에게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써주어 양소저는 피신한다. 양세에게는 소저가 죽었다고 하면서 장례까지 치르니, 양세는 그걸 믿고 기뻐한다. 차평자를 시켜 양소저의

17) 〈조씨삼대록〉 8권 82~83쪽.

두 아들까지 죽이려 했지만 아이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어머니와 만난다.

2) 부자간의 살해 시도

양세는 이제 뇌물을 써서 형부낭중이라는 벼슬에 임명되는데, 이때에도 아버지는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임금에게 쾌악한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간하여 임명되지 못하게 한다. 이에 화가 난 양세는 술을 마시고 불경한 말을 하면서 칼을 들고 양공을 찌를 것 같이 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들은 악행을 계속 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관직을 받는 것조차 막는, 불행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부자간에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들의 위협적인 칼춤에 아버지도 아들을 죽이려 하게 되는데, 양세의 위협스러운 거동을 보던 양공은 그를 끌어내려 밧줄로 동여매고 독약을 독주에 넣어 먹이려 한다. 아내와 며느리가 말리자 매를 때리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양세의 죄가 너무 많고 앞으로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면서 꼭 죽이겠다고 한다. 피범벅이 되도록 70여 대를 때리게 한 뒤 방에 가둬둔다. 그러나 양세는 장독이 나온 뒤에도 또다시 악한들과 함께 다니며 일을 저지른다.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선한 주변인이 그를 계도하거나 은혜를 베풀어 감동하게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만 그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 외중에 양세는 조성을 죽이려 마음먹는데, 이때 마침 초왕이 반역을 꾀하고자 하여 박수관과 차정인, 양세 등과 함께 의논을 한다. 먼저 동궁을 없앨 것을 도모하고 후에 조성을 죽이고 아리따운 양씨를 얻어 초왕비로 삼을 계책을 세운다.¹⁸⁾ 그러나 이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양씨가 살아

18) <현몽쌍룡기> 11권 43~44쪽.

돌아오며 조성도 여전히 임금의 총애를 입으니 양세는 더욱 질투심에 가득 찬다. 그래서 계월에게 단약을 먹여 양씨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데 이 일도 조성에게 들켜 실패하게 된다. 계월은 ‘양세가 양공이 양소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시기하여 양가의 종사가 양소저에게 돌아가고 수많은 재산과 많은 논밭과 집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여 밤낮으로 계책을 생각하였다는 것’¹⁹⁾을 자백하고 만다.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을 알고 살아날 계책을 논하던 중, 차정인과 강후신이 양공과 조성을 죽일 방안을 낸다. 양공을 죽인 뒤 조성이 죽었다고 고소장을 내면 조성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매제를 죽이는 일을 양세는 흔쾌히 수락하고 그대로 하자고 하니 ‘인륜을 어지럽힌 패악부도한 자’²⁰⁾라고 서술된다.

3) 아버지의 상소로 아들 처형

악인들이 양공을 죽이려 하는 것을 두씨가 듣고 미리 양공에게 말하자, 양공은 양세를 칼로 베어버리려 한다. 이에 대항하여 양세가 양공의 상투를 잡고 어지럽게 굴다가 치고 달아난다. 아들의 극악무도한 행패에 가족들은 놀라고 양공은 병이 난다. 이후 아버지는 임금께 아들을 죽여 달라는 상소를 쓴다.

(전략)신의 아들 양세는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자이지만 신의 며느리 두씨는 사덕(四德)을 갖추었고 한 점 혈육인 어린 아들은 비록 아직 강보에 있으나 사람 됨됨이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두씨가 패악한 아들의 죄에 연루된다면 이 태평한 시대에 원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은 임금께서 세우신 것이니 이제 양세의 아들 인을 세워 종가(宗家)의 맏이로 삼고 양세를 끊어버려 집을 보전

19) 〈현몽쌍룡기〉 11권 95~96쪽.

20) 〈현몽쌍룡기〉 12권 16쪽.

하도록 해주신다면 주상께서 주신 바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를 배반하고 인륜을 어지럽힌 아들놈을 찾아내어 잡아들이게 하시어 강상(綱常)의 대죄와 아버를 죽이고 인륜을 거스르려 한 죄를 다스려 죽이시며 또한 부자 지간의 인륜을 무너뜨린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태학사(太學士) 예부상서(禮部尙書)의 직첩을 거두시고 평범한 백성을 삼으시어 여생을 의지하게 하신다면 이는 다 성상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후략)²¹⁾

자신의 아들이 죄가 많으니 죽여 달라는 글을 읽은 임금은 양세 등을 처형한다. 양공과 두씨 모자도 연루되어 있으니 귀양을 보낸다.²²⁾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복수로 여동생을 모해하고, 그러다가 부자가 서로 죽이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처형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녔던 양세는 그 욕구가 좌절되자 오누이를 망치게 하는 쪽으로 복수를 하게 된 것인데, 동기(同氣)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천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얻고자, 재산을 지키고자, 가문계승권을 얻고자 그것을 어기려 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악인들과 동행했기에 더욱 악해져서 그들이 감언이설로 혼드는 대로 따라한다든지,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의리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마치 〈사씨남정기〉의 악인들 동청과 냉정 등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망하게 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최후에는 양세가 박수관의 집에 불을 질러 그가 모아두었던 재물들을 다 태우고 그 어머니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른다. 어머니의 눈에 기와조각이 튀어 아들을 보지도 못하거나 그녀를 업고 뛰던 박수관이 변소에 빠져 똥냄새가 진동하게 되거나 이 냄새 때문에 옷을 벗고 길가로 나가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²³⁾ 악인의 종말을

21) 〈현몽쌍룡기〉 13권 35~36쪽.

22) 〈현몽쌍룡기〉 14권 10쪽.

우습게 그리는 장치이기도 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리는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4. ‘부자 갈등’ 속 ‘남성 악인’ 설정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1) ‘부자 갈등’ 속 인정받지 못한 아들 서사의 의의

이상에서 필자는 〈현몽쌍룡기〉라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작품에서 단절된 부자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 양세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세는 아버지의 불인정, 차별 때문에 비뚤어져 가정 내의 분란을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으며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상소로 인해 죽었다. 양세가 부자 갈등에서 촉발되어 누이를 질투하고, 이것이 누이 모해로 옮겨 가 악행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계속하여 확대해가면서 아버지를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서사를 작품의 가장 큰 갈등으로 형상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들의 능력이나 인품과 상관없이 아들만을 중시하고 재산을 남겨주고 가문을 계승하게 하는 데에 대한 반감도 들어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는 딸을 경시하는 데에 대한 문학적 보상일 듯도 하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여성들이었고 이 작품은 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에 부응하는 서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사 기법 상으로도 극악한 악인 형상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비난을 유도하여 흥미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아닌 남성을 악인으로 설정하여 중심가문의 인물인 사위를 더욱 높이고, 서사의 확장도 꾀한 설정일 수도 있다.

23) 〈현몽쌍룡기〉 8권 31~33쪽.

‘부자 갈등’의 측면에서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갈등을 일으키는 두 사람 즉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부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면, 아버지나 아들 중 한 명은 바람직한데 나머지 한 명이 그렇지 않아서 한 쪽이 계속하여 참다가 나머지 한 명을 계도하거나 감화시켜 행복한 결말을 보이곤 한다.

예컨대,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형제 중 동생 유흥만 편애하고 형 유현을 박대하는데, 유흥이 못되고 형을 질투하기에 형을 참소하여 더욱 힘들게 한다. 아버지 유공은 급기야 흥을 만아들로 삼기도 하고 흥의 모해로 연은 유배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흥이 만귀비가 새 황제를 해치려다 발각되면서 공모했던 일당으로 함께 처벌되어 유배를 가게 되고, 연은 유배에서 풀려나 이부상서가 된다. 연의 간청으로 흥도 풀려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즉 <현몽쌍룡기>의 양공처럼 유공도 자식 중 하나를 편애하면서 다른 하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상은 같으나, 나쁜 유흥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착한 유언이 견디며 감화시켜 좋은 결말로 나아갔다면, <현몽쌍룡기>에서는 나쁜 양세의 악행을 받는 여동생이나 매제가 견디며 이겨내지만 그것이 양세를 감화시키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양세는 감화되기는커녕 다른 악인들과 연합하여 더 큰 악행을 계속해 나가고, 이에 맞서 아버지 양공도 아들을 타이르거나 따뜻하게 대화하지 않고 아들이 하는 일을 사적으로 막거나 임금에게 고하여 더 큰 벌을 받게 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켰다. 급기야 서로 죽이려 하는 등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다르다.

부자 갈등이 심한 작품 중 <보은기우록>을 보아도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고집이 셀 경우에는 아들이 군자형 인물이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 둘의 사이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므로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아버지 위지덕은 장사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재물

을 모으는 것을 가치 있다 생각하지만, 아들 위연청은 공부를 좋아하고 비범한 인물이기에 아버지의 인색한 사업이 악업을 쌓는 일이라며 삼가라고 간청한다. 그런 아들이 못마땅한 아버지는 공부하지 말고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하면서 아들의 훌륭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오히려 꾸짖으면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고집하고 강요한다. 아버지의 재취까지 합세하여 연청을 힘들게 하고 모해하여 죽이려 들기도 하지만 선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신선을 만나 살아나기도 한다.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괴로워서 병에 들자 재취가 독약을 먹여 죽이지만 며느리가 선약(仙藥)으로 회생시켜 부부가 함께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모신다. 마음을 바꾼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결말이다. 이 작품도 〈유효공선행록〉처럼 아버지의 편견이나 고집에 착한 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아들의 선행과 효행으로 아버지를 감화시켜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현몽쌍룡기〉,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모두 부자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있지만, 〈현몽쌍룡기〉만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갈등이 점점 커져서 서로 죽이려 하다가 아들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하겠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부자 갈등을 그리는 이유는 둘 중 한 명이 선한 인물일 경우 그의 선함을 강조해 보여주려 할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현몽쌍룡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효성 지극하고 선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공과 양세의 갈등과 양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양상은 작품의 주제적 지향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사적 재미의 측면에서 기획된 면이 강하다. 극악한 악인 형상을 통한 극적 긴장감 조성과 비난 유도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노린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서사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양세 부자의 갈등이 당대 현실과 맞닿은 면이 컸기 때문일 듯하다. 가문의 계승이나 재산의 분배 등과 얽힌 부자 갈등, 부모의 사랑과 재산 분배 등과 얽힌 형제 갈등이나 남매 갈등이 종종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극악한 '남성 악인' 설정의 의의

양세와 같이 극악한 악인 역할은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 작품들에서는 주로 여성, 대개는 며느리들이 맡는다. 아들의 악처, 악첩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그녀들을 징치해 가문의 어엿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서사가 대다수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그녀들이 계도되지 않을 때에는 남편이나 시동생 등 시가 식구들이나 나라에서 죽인다. 간혹 악행을 하는 딸을 친정아버지가 독살하려 시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남성'을 극악한 악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더욱 흥미로운 서사가 될 수 있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선인군과 악인군이 설정되곤 하는데, 선인들은 주로 중심 가문의 아들이나 딸이다. 이들은 모해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운명이므로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 기대대로 다시 좋은 시절을 맞는다. 반대로, 악인들은 서로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인들 중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거나 하늘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런 설정들이 운명론적 세계관이나 권선징악적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던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작품들에서 악인은 대체로 여성들이다. 다른 아내들과 애정을 다투거나 아들을 가문계승자로 만들기 위해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들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다. <유씨삼대록> 같은 작품에서는 진양공주의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해 악녀 장세를 거두지만, 타 작품에서는 대체로 그러하다. 음욕을 드러내거나 투기를 하거나 다른 아내의 아들을 박대하는 행위들은

모두 용서받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남성 악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성 악인들을 돕는 도사나 요술사, 자객들이 많아 보조인물이라 할 만하고 조연급은 몇 안 된다.²⁴⁾ 그런데 연작인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에서는 각각 양세, 설강이라는 대단한 악인들이 길게 등장하는 것이 특별하다 할 수 있다. 둘 다 누군가를 질투하여 악행이 시작되는 점도 같다. 이들은 다른 남성 악인들을 동원하여 긴장감 있게 갈등을 조성하는데, 가문 밖의 인물들을 끌어들이 활동 무대를 넓히는 효과를 내었다. 하지만 둘의 결말은 달랐으니, 설강은 계도되는 반면 양세는 죽는다. 양세는 혈육인 누이를 질투하여 누이를 모해하고 매제를 죽이려 하다가 급기야는 아버지도 죽이려 했으므로 용서받지 못한다. 부자간 갈등이 첨예하여 서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양세를 두둔하거나 개유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설강은 친구를 질투하여 친구의 아내를 모해하고 친구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지만 친구의 포용력과 도움으로 개과천선하여 위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양세가 아버지나 누이를 해하려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양세’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기대만큼 똑똑하고 훌륭하지 못하였기에 어릴 때부터 못난 자식, 어질지 못한 자식, 부모 마음을 거스르는 아들, 가문을 망칠 아들이라고 평가되던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대신 딸을 예뻐하고 그 남편에게 가문 계승권과 재산을 주려고 하였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을 미워하기만 하고, 타이르려 하거나 대화를 하려 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며, 주변인들도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들의 극악한 악행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등 개연성이 떨어지고 통속적인 쪽으로 흘러간 면이 있다. 하지만 〈현몽쌍룡기〉에서 보인 양세라는 인물의 형상화는 중심

24) 〈임화정연〉의 진상문, 〈쌍천기봉〉의 여환, 〈명주보월빙〉의 구몽숙 등 몇 작품에서 조연급의 남성 악인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가문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흥미롭게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부자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절된 부자관계와 그로 인한 비극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인 것이다.

참고문헌

- 〈현몽쌍룡기〉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김문희·장시광·조용호 역주, 『현몽쌍룡기』 1~3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69~96쪽.
- 김문희,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웃음의 서사미학」,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167~204쪽.
-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3호, 2003. 31~53쪽.
- 이중오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1~350쪽.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쪽.
- 이지하, 「〈현몽쌍룡기〉의 음모구조와 소설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311~342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389~419쪽.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연구」, 『한국고전연구』 49, 2020. 5. 173~197쪽.
-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59~398쪽.
- 채수환, 『비극문학-서양문학에 나타난 비극적 비전』, 지식산업사, 1~303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2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학회, 2019. 269~303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애욕추구형 악인의 삼각형의 욕망 구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387~418쪽.
- 한길연, 『영웅소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14. 479~508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96쪽.
- 홍정표, 『정념기호학-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1~327쪽.

ABSTRACT

A study on Yang-Se, “the unrecognized son” in *HyeonMongSsangRyongGi*

Jeung, Sun-hee

This thesis examines what Yang-Se the unrecognized son in a disconnected father-son relationship is doing, the kind of feelings he has, and what results his actions produce in the 18th-century Korean classic novel *HyeonMongSsangRyongGi*.

Yang-Se descends into perversity because of his father’s disapproval and discrimination, cause a family feud, and tries to kill his father. Finally, he dies by taking part in a treasonous plot. Earlier in the narrative, Yang-Se becomes jealous of his sister because of a father-son conflict, and his jealousy motivates him to plot to harm his sister. When this does not work out, he becomes increasingly wicked and eventually hurts his father.

Yang-Se wanted his father’s love, but the tragedy began because he was a son who did not meet his father’s expectations, and after misbehaving, 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his father would either kill him or ask the king to kill him. Hence, the figure of Yang-Se in *HyeonMongSsangRyongGi*, is a way to advance the narrative interestingly, while highlighting the central family and fostering introspection about father-son conflict the biggest issue of the time.

Key Words *HyeonMongSsangRyongGi*,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 father-son relationship, father-son conflict, villain, anger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